



갈대밭 흔들리는 여심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8일 광주 남구 송촌동 영산강변 둔치의 갈대숲 사이로 모녀가 다정하게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대된다, 문화전문가 25명의 '아트 워크숍'

광주시·美대사관 주최, 광주일보 후원

10~11일 빛고를 시민문화관서 열려

전국의 내로라 하는 문화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여 '융합'을 주제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미래를 전망한다.

광주시와 주한미국대사관은 10~11일 광주 빛고를 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2012 아트 전시회 및 워크숍'(Art Exhibition & Workshop·이하 아트워크숍)을 열고 아시아의 다양성과 차이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인터뷰 18면)

주한미국대사관이 광주에서 아트 워크숍을 개최하는 이유는 오는 2014년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미국의 선진문화예술기관

들의 운영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광주일보가 후원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아트 워크숍은 광주, 부산, 대구, 전주, 춘천 등 전국 12개 시·도의 문화전문가 2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한국 디자인계의 거두인 나건 홍익대 교수(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와 김문조 고려대 교수(사회학과)의 공개강좌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인권 전주 소리의 전담 대표, 변우식 춘천 낭만골목프로젝트 대표, 박덕은 경남메세나협회의 전무, 원상용 대구문화재단 부장, 이명희 부산아



나건 교수 김문조 교수

트인대포 대표, 박종훈 경남 교육포럼 등이 참가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려줄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박광석 광주시청 문화예술진흥과장, 조승기 미테우그로 대표, 윤익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김미은 광주일보 문화부장,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홍보교류팀장 등이 참석한다. /박진현 문화전문기자 jhpark@

몰려오는 크루즈船 델 곳이 없다

내년 최대 100척 전남 찾아...전용부두·지원시설 구축 시급

최근 한류 열풍과 순천정원박람회(2013년 4월 20일~10월 20일) 등 잇단 국제행사로 해외 크루즈 선박들이 남해안으로 몰려오고 있지만 전남지역에는 전용부두 등 관련 시설이 전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내년에만 최고 100척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내 유일한 크루즈 부두인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크루즈 부두가 박람회 폐막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폭포 크루즈 전용부두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8일 "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 폐막으로 운영이 중단된 박람회장 크루즈 부두를 사용하기 위한 연간 운영비 24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고, 부두 배후부지 매각을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수 크루즈 부두는 박람회 기간에

7만5000t급 코스타 크루즈사의 '빅토리아호' 등이 접안했으며 이용객은 2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박람회 폐막 후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 여수해양항만청이 맡고 있지만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정부가 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으로 따라 크루즈 배후 부지 10만㎡(3만평)도 매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비 356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부두가 반쪽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크루즈 부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지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이 건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크루즈 부두에 이들 시설이 없으면 출장 검역을 해야 하는 등 입국 절차가 복잡해지고, 크루즈 관광을 겨냥한 면세점과 쇼핑센터 등의 추가 건립도 힘들어진다. 목표항에 국비 690억원을 들여 건설될 계획인 전용부두도 정부의 무관

심 속에 실시계획비도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류와 중·일 영토분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크루즈 여행을 일본에서 국내로 옮기고 있어 운항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박람회 전용부두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숙박이 가능한 크루즈는 특급호텔이 없는 전남지역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는 중국의 '스타크루즈'와 여수 크루즈 부두 13항차 정기운항을 확정했고 ▲삼하이~여수 정

기 운항 ▲'비블호' 여수~하카타항 운항 ▲'코스타' '하모니크루즈' 여수 입항 등 중국 내 16개 여행사와 100항차 크루즈 운항을 협의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류와 중·일 영토분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크루즈 여행을 일본에서 국내로 옮기고 있어 운항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박람회 전용부두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숙박이 가능한 크루즈는 특급호텔이 없는 전남지역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진도 '간암 집단발병' 국내 첫 확인

남성 발생률 10만명당 71명...전남지역 평균보다 최고 60% 높아

정부의 암 역학조사 결과, 진도군에서 '간암 집단발병'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의 의원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국내 최초의 암 심층역학조사에서 진도군의 간암 집단발병 사례를 확인했으며 C형간염이 유력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측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2008년 진도군의 인구 10만명당 간암 발생률은 남성이 71.7명, 여성이 18.8명으로 전남 전체 평균보다 40~60%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1999~2003년의 경우 진도군 남성의 간암 발생률은 전남지역 남성 평균치 59.7명보다 53% 더 높은 91.6명을 기록했으며, 여성 발생률(19.0명)도 전남 전체 여성(13.3명)에 비해 훨씬 높았다.

진도의 간암 발생은 전남지역뿐 아니라 전국 평균(남 46.5명, 여 12.3명)이나 인근 중국(남 42.5명, 여 11.3명), 일본(남 39.8, 여 11.9명)보다 훨씬 많다. 같은 기간 진도의 간암 사망률(남 73.2명, 여 18.4명)도 전남 전체 평균에 비해 60% 더 높았다. 식중독 등 역학조사는 흔히 있지만 암 발생 '심층 역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조사에서 암 집단발병이 확인된 것도 최하다.

앞서 여성 갑상선암 조사(2008년), 인천 동구 폐암 조사(2009년), 경북 상주 백혈병 조사(2010~2011년)의 경우 초기 역학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져 더 이상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도군의 경우 이번 조사를 통해 간암 발생률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집단발병 사례'로 간주돼 질병관리본부는 암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이 2008~2009년의 지역

사회건강조사 항목 가운데 B형간염, C형간염, 음주, 흡연 등 간암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도 주민의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문헌상 유병률 수준인 약 1%대의 5~10배에 이르는 점을 확인했다.

진도 주민의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양성률은 7.8%(2008년)와 12.0%(2009년)를 기록했으며 특히 진도읍과 4개면의 HCV 양성률은 12.4~14.3%를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진도 지역에 간암이 많은 특별한 원인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지만 C형간염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여수시에 갑상선암이 특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초역학조사에 따라 '암 발생 및 사망률 기술역학적 분석'과 '갑상선암 임상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암 집단 사례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심층 역학조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이 가득한 집!

내집마련의 문이 활짝!

생활의 자부심을 넘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유로운 삶이 느껴지는 곳! 교통, 자연, 교육, 생활 그 모든것을 갖춘 '사랑으로, 부영'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십시오.

광주 첨단 2지구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1,772세대 분양!

(군면위: 안동)

주택형 (전용면적)	세대수	분양금	분양금 납부방법			입주 (예정일)	문의전화
			계약금	중도금	잔금		
60㎡	1,184	15,900	1,590	4,770	9,540	2013년 1월 062)368-8323~4	
84㎡	588	21,800	2,180	6,540	13,080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 우수한 교통환경** 국도 1호선, 제2순환도로, 담양 및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 IC의 조성으로 초광역 교통망의 중심이 된 특급 교통환경
- 우수한 생활환경** 정부광주합동청사, 식약청, 국제청 등의 공공시설이 5분거리에 위치하며, 대형마트, 놀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근접한 특급 생활환경
- 우수한 교육환경** 초, 중, 고등학교(개교예정)가 단지내에 조성되며, 우수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이 인접한 특급 교육환경
- 우수한 미래가치** 디지털전산업 등 첨단산업단지와의 낙후한 녹지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연면적 2백만㎡에 이르는 첨단 2지구의 특급 미래가치

입주자를 위한 고정 설치품목!
LED TV / 김치냉장고 / 디지털도어록 / 홈오메이션 가스오븐렌지 / 전자비데 / 음식물탈수기 / 행주도마살균기 / 세제디스펜서
전·후면 발코니 확장 시공 (세시 포함)

http://gwangju.booyoung.co.kr (주) 부영주택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

모델하우스 개관중!

바닥 전체 (안방, 작은방 1·2, 거실, 주방) 강화마루 시공!

중도금 무이자 혜택!